

설 연휴 평균 4.1일...상여금 116만원

올해 설 연휴에 근로자들은 평균 4.1일을 쉬고 상여금으로 116만1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4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일수는 평균 4.1일로 전년(3.9일)에 비해 0.2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이 4.4일, 300인 미만은 4.0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300인 이상은 0.3일, 300인 미만은 0.2일 증가했다.

올 설에 4일 이상 쉬는 기업은 91.4%로 지난해(84.7%)보다 6.7%p 높아졌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

경총, 4일 이상 쉬는 기업 91.4%...3.7%p 늘어

상여금 지급 71.4%...“전년비 경기 악화” 45%

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116만1000원으로 지난해(112만9000원)보다 3만 2000원(2.8%)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164만6000원, 300인 미만은 103만9000원으로 300인 이상은 지난해보다 5만7000원(3.6%), 300인 미만은 2만6000원(2.6%) 증가했다.

상여금 지급하는 기업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71.4%로 지난해 설보다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은 3.4%p(75.4%→78.8%), 300인 미만은 2.6%p(67.0%→69.6%) 각각 증가했다.

설 공휴일 외 추가휴무 실시의 이유는 '취업규칙·단협상 명문화(56.9%)'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근로자 편의 제공(26.2%)', '연차 휴가수당 절감(11.3%)' 순이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 상여

금 지급(88.0%)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별도 휴가비 지급'(24.6%), '정기상여금과 별도 휴가비 동시 지급'(7.4%) 순이었다.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45.1%였다. 기업들은 올해 설 체감경기에 대해 '매우 악화됐다'(12.3%), '악화됐다'(32.8%) 등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에 설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72.3%보다 27.2%p 대폭 감소한 것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0.3%로 지난해 조사 결과(25.0%)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개선됐다'는 응답은 4.0%였다.



유아동 상품 최성수기 2월...대목 노린다

“신학기 시즌·설 겹쳐...유통가, 소비자 지갑 열기 경쟁”

2월은 유아동 상품 판매의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이에 대목을 노린 유통가는 소비자 지갑 열기 경쟁에 나섰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월은 유아동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다. 신학기를 앞둔 부모들이 내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성능이 좋은 가구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교구, 도서 등을 새롭게 구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동팔이나 의동아들만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한 자녀에 투자하는 씀씀이가 커진 탓도 있다. 귀한 의동아이를 칭하는 이른바 '골드키즈' 1명에 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까지 지갑을 여는 '에잇포켓' 현상이 생

기면서 유아동 상품 매출이 커진 것이다.

온라인 쇼핑물 11번가에서도 이러한 판매 추이가 나타났다. 11번가는 '유아 가구' 카테고리의 지난해 월 별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2월 거래액 비중이 13%로 1년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거래액 성장률도 41%에 달해 다른 달과 비교해 최고치를 기록했

다. '유아 도서' 역시 2월 거래액 비중이 11%로 1년 중 두드러졌다.

롯데백화점에서도 지난해 스포츠·아동 상품군에 속한 브랜드 별 백팩의 연 평균 매출 비중은 7~10%로 의류, 슈즈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낮았지만, 신학기인 2월에는 스포츠는 최대 30%, 아동 브랜드는 최대 50%까지 크게 늘면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아동 상품 시장이 '불황무풍지대'로 떠오르자 유통 업체들은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해 씀씀이가 커진 부모들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번가는 지난 5일 '어린이날 기획전'을 통해 신학기 쇼핑을 위한 할인 혜택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9일부터 아동·스포츠 상품 '신학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신상품 출시 및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기능성 백팩 물량을 전년 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뉴스스

직장인 60% “설 연휴 귀향”...‘귀성 15일·귀경 18일’

4일의 짧은 연휴가 주어질 올 설 연휴 직장인들의 귀향 계획은 어떠할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은 직장인 837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귀향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4%의 직장인이 귀향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귀성 예정일은 설 연휴 첫날인 '15일'이 3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설 연휴 전날인 '14일'(31%), 설 당일인 '16일'(20.8%)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13일 이전'(4.5%), '17일'(3.3%) 등의 순이었다.

귀경 예정일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18일'(31.4%)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17일'(30.4%), 설

당일인 '16일'(25.2%)이 있었으며, 설 연휴 시작인 '15일'(4.8%), 설 연휴가 끝난 '19일'(3.7%)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귀향 시 이용할 교통편으로는 '승용차'(66.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속버스'(14.3%), 'KTX'(13.4%), '지하철'(4.5%), '기차'(3.7%) 등 순이다.

반면 귀향 계획이 없는 직장인(298명)들의 설 연휴 계획은 '집에서 휴식'(62.4%·복수응답)한다는 의견이 1위였다. 다음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24.8%), '친구, 지인과 만남'(22.5%), '여행'(10.4%) 등으로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법정공휴일로 보장된 '4일'(51.9%)을 쉬겠다고 응답한 이들

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3일'(14.8%), '5일'(11.9%), '2일'

뉴스스



스타벅스에서 사랑을 전하세요 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스타벅스 한국 프레스센터점에서 직원들이 스타벅스 커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이벤트 음료 주문 시 큐피트 모양의 스몰레시 스틱을 증정하는 행사를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판매 허용 후 20~30대 女전통주 소비 ↑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지난해 7월 이후 20~30대 여성들의 전통주 소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빅데이터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빅데이터로 본 전통주 소비 트렌드를 6일 발표했다.

이는 2016~2017년 2년간 명절·설날·전통주 키워드로 언급된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1만 2706건과 농협 하나로마트·G마켓·옥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지난해 7월 SNS 언급량이 2만건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해 말에는 3만211건까지 늘었다.

명절 선물용이라는 전통주의 인식도 변화해 강남·홍대, 이태원 등 20~30대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전통주 소비가 늘고 있었다.

전통주하면 떠오르는 시기는 2016년 2위였던 '명절'은 지난해 3위로 떨어졌지만 반면 4위였던 '일상'은 2위로 올라섰다. 특별한 날에 마시게 돼 '행사'를 떠올리지만 순위는 2016년 3위에서 5위로 낮아졌다.

국내 항공기, 10년간 2배 증가...“800대 눈앞”

저비용항공사(LCC) 성장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최근 10년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등록된 항공기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79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대(3.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418대에서 2010년 514대, 2013년 623대, 2016년 761대, 2017년 792대로 늘어났다. 올해도 22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8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된 수치로 3년 단위로 평균 100대씩 증가 추세를 보여 향후 5년 내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792대의 항공기 분포를 보면, 국내·국제 운송사업용 369대(46.6%), 비사업용 221대(27.9%), 항공기사업 172대(21.7%), 소형항공운송사업 30대(3.8%)순이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